

예술은 본질상 탈주적 일 수 밖에 없다. 기존의 지배적인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식과 세계를 창조-생성함으로써만 예술은 존재할 수 있다. 이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기나긴 훈련의 터널을 통과해야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존의 훈련이 정의하는 대상과 방법에 그안에서 사고하게되며 사고하는 직업을 갖게 된 이후에는 너무 기존의 가치와 훈련에 길든 연후가되어 자기머리로 무언가를 하기엔 너무 늦다. 그러나 예술가는 다르다. 그들은 많은 경우 자신이 뛰쳐나간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채 탈주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사고가 갇혀있던 경계의 한 구석을 확장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경계를 벗어난 사고방식"을 이용한다. 위대한 예술가에 의해 확장된 경계는 개방되어있다. 그곳이 무엇인지, 그런 탈주가 창조한 것이 무언지를 아는 것은 언제나 나중의 일이다. 비평이란 어떤 작품의 새로운 절단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새로운 것으로 낯설게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채굴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어떤 작품이 갖고있는 탈주적 ,혁명적, 창조적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절단면을 구획하는 것이다.

예술을 신체를 가리는 화려한 장식으로만 아는 것은 속물적이다. 분과화 되고 철저하게 규율화된 세계에서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탈주를 예술가의 힘을 빌어 수행하는 것, 다시말해 예술작품을 통해서 창조적 탈주적 사고 방식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향유의 기쁨 다음에 예술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